

지옥과 업경대는 저승에 대한 전통적 사고 속 풍경 안에 함께 등장한다.

옛날 사람들은 열라대왕이 있는 지옥을 어느 정도 믿으면서 대왕 앞에 놓여 있다는 업경대라는 것을 역시 신비의 어떤 한 물건 정도로 믿고 있었을 것이다.

현대인들은 어떨까? 과학을 믿는 현대인들은 지옥은 '설마 그런 것이.....' 하면서도 업경대라는 존재의 가능성은 옛 사람들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과학 덕분이다.

과학은 지금 이승에서도 개개인의 언행을 기억해 남기기 시작했다. 하물며 무소불위의 저승 세계 주인이 무엇인들 못할 것인가.

현대인들의 이승에서의 삶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살면서 우리 행위의 잘잘못을 낱알이 살피다가 경신(庚申)날 우리가 잠들면 틀레 하늘로 올라가 천제에게 이를 고해바친다는 도교의 삼시(三尸)라는 벌레가 아니라, 벌이나 모래에서 채취한 구소라는 것으로 만든 반도체라는 것이다. 기억을 하는 것이 생물이 아니라 업경대와 같은 무생물이다.

도시의 길거리마다, 대형 빌딩마다, 아파트 단지, 주택가의 골목길에도 CCTV라는 것이 깔려 있어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된다.

생활환경의 유비쿼터스화는 편리함이라는 유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날 것 그대로의 욕망

혹으로 개인의 활동 하나하나를 기억하도록 설계돼 가고 있다. 이승에서의 업경대는 이렇게 진화해 가고 있다. 유전자라는 것도 이승의 미래 '업경대'를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다.

이러니 현대인들이 업경대 존재 가능성을 어떻게 의심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옥의 존재는 믿지 않고 업경대의 존재 가능성을 믿게 되는 현대인들은 옛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사람들에게는 드러내고 싶지 않는 원초적 욕

망이라든가 대단한 비밀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았다. 그것이 발가벗겨지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벗어두고 좋다는 쪽으로 나가게 될는지 모른다.

정제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드러나더라도 뭐가 부끄럽겠는가? 누구나 다 그런 것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그런 것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옥은 없고 업경대는 진화해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모습을 인터넷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나 할까?

요즘은 그 변화에 뒤질세라 공중과 방송들까지 '자신들의 본분이나 위치'마저 잊은 채 '날 것 그대로의 욕망', 패륜과 불륜과 흉악 범죄와 거짓말과 저질화 된 사회를 영상으로 만들어 다뤄서 우리를 안방으로 쏘아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보면 배우고 따라하게 되는 것'이 TV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만약 현대인들이 저승 열라대왕 앞에 있는 업경대 앞에서 '뭐가 죄업이란 말입니까? 악육강식, 욕망의 세계를 사는 인생이란 다 그런 것 아니가요? 인생 공부 좀 하세요.'라고 대들지 말란 법도 없겠다.

문화나 문명은 인간 삶 안에 있는 무질서와 폭력·불안·공포·불편함 등을 줄이면서 품어왔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위해 윤리나 도덕 종교와 함께 발전해 왔다. 여러 종교가 나름대로 내놓은 '지옥'도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을 정제하려는 방법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무질서와 폭력, '날 것 그대로의 욕망'이 만들어 내는 패륜과 불륜자세가 지옥일지도 요즘 TV는 시청자들에게 그 지옥도를 보여주며 지옥이 이 땅에 현존함을 알려주려는 것일까? 삶의 품위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목마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개발에 앞서 정신문화도 챙겨야

"좌절도 하지 말고 오만하지도 말고 망중환의 자세로 가라."

5월 21일 한나라당 세신특위 위원들의 예방을 받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의 일성이다. 지관 스님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의 개발 정책에 대해 "경제도 중요하고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다"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제를 완화시킨 환경부의 방침을 비롯한 개발 논리에 대한 우려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우려에는 "경제 성장이 국민의 행복지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지관스님의 심증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다.

조계종 행정 수반의 이 같은 의견은 사찰의 수행 환경이 침해 받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 받는 상황에서 매우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자연공원법 개정 시 사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 되는 등 일련의 개발위주 정책에 대한 일침이기 때문이다.

조계종이 최근 전통 사찰의 경내지를 국·도·군립 공원 지역에서 해제하려는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결의를 하게 된 것도 결국 사찰의 수행환경과 문화유산 보호 기능을 무시한 정부의 처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다. 우리는 그간 전통 사찰의 공공의 기능과 민족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에 대한 노력이 개발논리에 침해 받는 것을 여러 차례 우려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불교계의 여망과 반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는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와 더 진지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개발과 보존의 합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불교와 의학의 만남'에 거는 기대

동국대 의료원과 불교문화연구원이 5월 28일과 30일 여는 불축학술세미나의 주제는 '불교와 의학의 만남'이다. 이번 행사는 개인 및 학회 단위로 이뤄졌던 불교의학 연구를 한국불교학의 중심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부처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해 증상을 구제하는 동국대 의료원이 주도적으로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최 측은 "최첨단 의료연구 분야인 뇌신경과학, 경락 등과 불교의 심신수행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불교와 의학의 깊은 만남이 될 것"이라 말했다. 경전과 선 사들의 법문을 언급하지 않고도 주위를 돌아보면 불교와 의학의 만남 뿐 아니라, 불교가 주목될 분야는 많다. 예슬은 물론 정치, 경제 등 사회의 어느 분야라도 부처님 가르침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불교응용학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것과는 달리 성과는 아직 크지 않다. 그러나 분야별 연구 노력의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체제도 폭넓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선사들의 활활발발한 선기(禪機)처럼 생동감 있어 야 할 불교가 일주문에 갇혀 세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항상 있어왔다. 이번 동국대가 맺은 '불교와 의학의 만남'이 불교와 세간의 다양한 학문의 결합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황수경 동국대 강사

사부대중 테마칼럼

"가족이라는 인연에 감사해요"

5월의 테마-가정

"우리 집은 저의 막내아들 덕분에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거사님이 말했다. "식구들이 의견이 안 맞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 단 그 아이만 보면 다들 잠잠하게 되거든요" 대해 얼마나 훌륭한 아들이기에 그럴까 싶었다. 공부 잘 하고 착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무엇보다 부모와 형제에게 효도하는 아들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전혀 아니었다. 거사님의 막내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정신지체 장애우였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돌보아 주고 있었다. 수십년이 지나는데 동안 가족들은 그를 돌보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해 지내왔다고 한다. "우리 집 북명이지요"하는 거사님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 그 놀라운 긍정과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 스님의 법어가 떠올랐다. '나미 내게 잘해 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런 행복한 사

람이다.' 그 가족은 아들에게 받을 것, 못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것이다.

가족이라는 인연에 무조건 감사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기대하는 바가 더 많고 상처받기도 쉽기 때문이다. 외국의 어떤 저명한 가족상담가가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수십년간 가족문제를 상담한 결과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한 가지만 고른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가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족간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간에 조그만 갈등이나 차이가 있어도 우리 문제가 있다. 사랑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생인 인간들끼리 어떻게 항상 한 마음일 수 있겠는가. 문제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 차이를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이 사랑이다. "잘난 남의 어머니보다 못한 내 어머니가 낫다"라는 말씀이 있다. 아무리 인정하기 어려워도 가족의 인연은 내가 지어놓은 것일 뿐이다. 수억겁을 거친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가족으로 이 생애 만난 인연, 얼마나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봐서 얻을 수 있는 바(福氣)와 악(厄)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대역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전족, 연속 인체지명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법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분묘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

현불만평 박구원.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복관. 편집국 02)2004-8234-55, 02)737-0698. 회신콜 02)2004-8213-7,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사부대중 테마칼럼. "가족이라는 인연에 감사해요". 5월의 테마-가정. 글쓴이: 혜천법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최복관. 편집국 02)2004-8234-55, 02)737-0698. 회신콜 02)2004-8213-7, 02)737-0696. 현대불교 지사안내.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중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서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 '수시모집' 2. 교육내용: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옥,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범패 - 거불, 복장계, 헌좌계, 가영향수나열, 도량계, 대계 등, 작법 - 천수바라, 요잔, 사다라니 등 도량계, 대계 등.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중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 (주) 053)621-7521 (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중무원 문화원

統合佛敎儀式大典 出刊. 총 1,2권 2,100페이지. 가격: 전권 200,000원. 크기: 4x6배판 (19x26cm). 본문번화식의대전 / 총 1권 2,745페이지. 가격: 100,000원. 사승구제편, 고사편, 추천인. 1.입재 불공의식, 2.삼우제 불공의식, 3.초재 불공의식, 4.이재 불공의식, 5.삼재 불공의식, 6.사재 불공의식, 7.오재 불공의식, 8.육재 불공의식, 9.칠재 불공의식. 1.가정안택 의식, 2.사무실고사 의식, 3.지동차고사 의식, 4.선박 고사 의식. 기타편: 宗 釋, 宗 釋, 宗 釋. 산재살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統合佛敎儀式大典. 문의전화: 055)747-8350, 017-552-7350. 계좌번호: 농협 803-02-752331 예금주: 김모경 우체국 612173-02-021600 예금주: 김모경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글쓴이: 혜천법사.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책자 안내.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